

함초가 그린 가을날의 수채화



전형적인 가을날씨를 보인 4일, 신안군 중도 태평염전 연 염생물원에 피어난 빨간색의 함초가 노랗게 물든 갈대와 어우러지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신안=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사회 의결없는 독단 임명... 절차적 정당성 문제 있다”

허성관 임명안 11일 재처리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 소집

김수삼 이사장은 사퇴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이 허성관 원장 임명 강행 논란에 책임을 지고 4일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 선출과 허 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이사회가 원장 임명 동의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허 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이번 연구원장 임명 강행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문순태 이사(소설가)는 “법적으로 이사장에게 원장 임명권이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사장이 독단으로 원장을 임명해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11일 이사회에서 허 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을 이사들에게 다시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김 이사장이 임명을 강행한 허 원장에 대해 그동안 법적 하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당시 이사회 간담회 직후 임명된 허 원장을 두고 ‘원장 임명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는 주장과 ‘이사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따라서 오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허 원장은 이사진들의 손에 의해 또 한번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 지역사회 사이에 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설득·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나는 그만두지만 허 원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논란이 끝났기를 바랐지만 시·도 의회는 허 원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시·전남도 ‘핑퐁 행정’ 혁신도시 교통지옥 장기화

진입로 ‘입체화 교차로’ 건설
도, 시행3사에 공사비 떠넘겨
시행사 ‘평면교차로’ 고집에
나주시, 직접시행 나섰다가
예산 벽에 막혀 사업 원점으로

전남도와 나주시, 혁신도시 시행 3사(LH공사 등)의 ‘책임 회피’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출·퇴근길 ‘교통지옥’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초 전남도가 혁신도시와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대해 직접 ‘입체

화 교차로’ 건설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시행3사에게 공사비를 부담토록 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시행 3사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입체화 교차로’ 대신 교통난이 불가피한 ‘평면교차로’를 고집하고 있다.

결국 전남도의 미온행정으로 지역민의 민원에 시달리다 못한 나주시는 시행3사로부터 일부 사업비를 넘겨받아 입체화 교차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고<광주일보 10월15일자 2면>고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주시청 내부에서 예산문제를 놓고 부서간 정리가 되지 않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시행 3사는 올 연말이면 나주 혁신도시에서 철수할 예정이어서 자칫 입체화교차로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거쳐 혁신도시로 진출입하는 운전자들은 남평 병목 구간에서 심각한 차량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나주시는 해결책으로 국도 1호선과 혁

신도시를 연결하는 북측 연결도로(나주 산포 매성리 일원)의 입체화교차로 신설을 주장해 왔지만, 시행3사는 입체화교차로는 전남도에서 건설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평면교차로 설치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시행3사에 지난 2013년 10월28일자로 공문을 보내 ‘(시행3사가) 교차로를 조성하면 이후 접속부의 입체화 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평면교차로의 경우 980m 4차선 진입로 공사비로 188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입체화교차로는 91억원이 추가된 279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익산지방국도관리청도 지난 5월 시행3사에 공문을 보내 ‘평면교차로 설치시 시야 확보 등이 어려워 교통사고 발생, 신호등 수신에 따른 차량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입체화교차로가 마땅하다’고 밝힌 상태다.

전남도도 시행 3사간 책임공방의 불통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나주시로 넘어가면서 건설 자체가 미궁으로 빠져든 실정이다.

■ 산포~혁신도시 신규도로 조성도



나주시는 최근 LH공사 등 시행 3사와 협의를 거쳐 자선책으로 사업비 188억원을 이관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추가 사업비 91억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결국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미 나주시 의견대로 시행 3사에서 188억원을 넘겨주기로 협약이 끝난 상태”라면서 “부족한 예산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될 일이 아니냐”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자연재해·화재·교통·감염병·범죄

최하위 등급 ... 불안한 광주·전남

안전처, 지역안전지수 발표

광주·전남지역의 화재, 안전·교통사고, 범죄, 감염병 등을 수치화한 안전지수가 전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분야에서는 담양과 장성군이, 교통 분야에서는 나주시와 고흥·보성·영광군,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순천시와 영암·진도군, 광주 동·남·북구 등이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4일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등급)에 따르면 광주는 자연재해와 범죄 등 2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전남은 자연재해·화재·교통·감염병 등 4개 분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나머지 분야도 2~4등급을 받았으며, 전남은 범죄 분야에서만 1등급을 받았을 뿐 안전사고와 자살 분야에서도 4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별로는 나주와 광주 동구가 총 7개 분야 가운데 5개 분야에서 5등급

을 받아 안전지수가 최악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 자치단체의 교통분야 안전지수는 동구(5등급)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4등급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화재 분야에서는 담양과 장성군이, 교통 분야에서는 나주시와 고흥·보성·영광군,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순천시와 영암·진도군, 광주 동·남·북구 등이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범죄 분야는 목포시와 영암·영광군, 광주 동구가, 안전사고 분야는 나주시와 광주 동구, 자살 분야는 나주시와 구례·보성군, 감염병 분야는 나주시·고흥·장흥 그리고 광주 동구가 5등급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생각-기원 ▶3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 세미나 ▶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여느 땅과 같지만, 그곳에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곳

우리 오늘 해남에 가니라!

해남공룡화석지 망골담 우수영 관광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빠르게!!

유럽형 쾌속선 퀸스타호 카페리 여객선 뉴드림호

해남우수영 ↔ 추지도 ↔ 재주도 해남우수영 ↔ 옥신도